

2016. 6.

- 2016년도 예산군의회 -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기간 : 2016. 5. 19(목) ~ 5. 27(금) [7박 9일]
- 연수국가 : 서유럽 3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 연수인원 : 15명(의원 10명, 의회사무과 직원 5명)

2016. 6.



예 산 군 의 회

목 차

① 연수개요	-----	2
② 연수 세부일정	-----	5
③ 연수국 일반현황 및 연수 내용	-----	7
① 영 국	-----	7
② 프랑스	-----	22
③ 스위스	-----	38
④ 연수총평	-----	44

- 2016년도 예산군의회 -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개요

1. 목적과 배경

선진 서유럽 3개국에 대한 공무국외연수를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도시계획, 공원, 도시기반시설, 관광자원 등의 비교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 능력배양을 제고시켜 예산군 정책 입안에 참고 활용하고자 함.

2. 기간 및 지역

- 연수기간 : 2016. 5. 19(목) ~ 5. 27(금) [7박 9일간]
- 연 수 국 : 3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 연수인원 : 총 15명(군의원 10명, 의회사무과 직원 5명)

3. 연수내용

- 우수 관광산업 성공 현장 벤치마킹으로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
- 신도시계획시설 현장 방문으로 도시 기반시설 활용실태 비교 분석
- 선진 아동복지, 노인복지시설 기관 방문을 통한 시설 및 운영관리 발전 방안 벤치마킹

4. 주요기관 방문 간담 및 현장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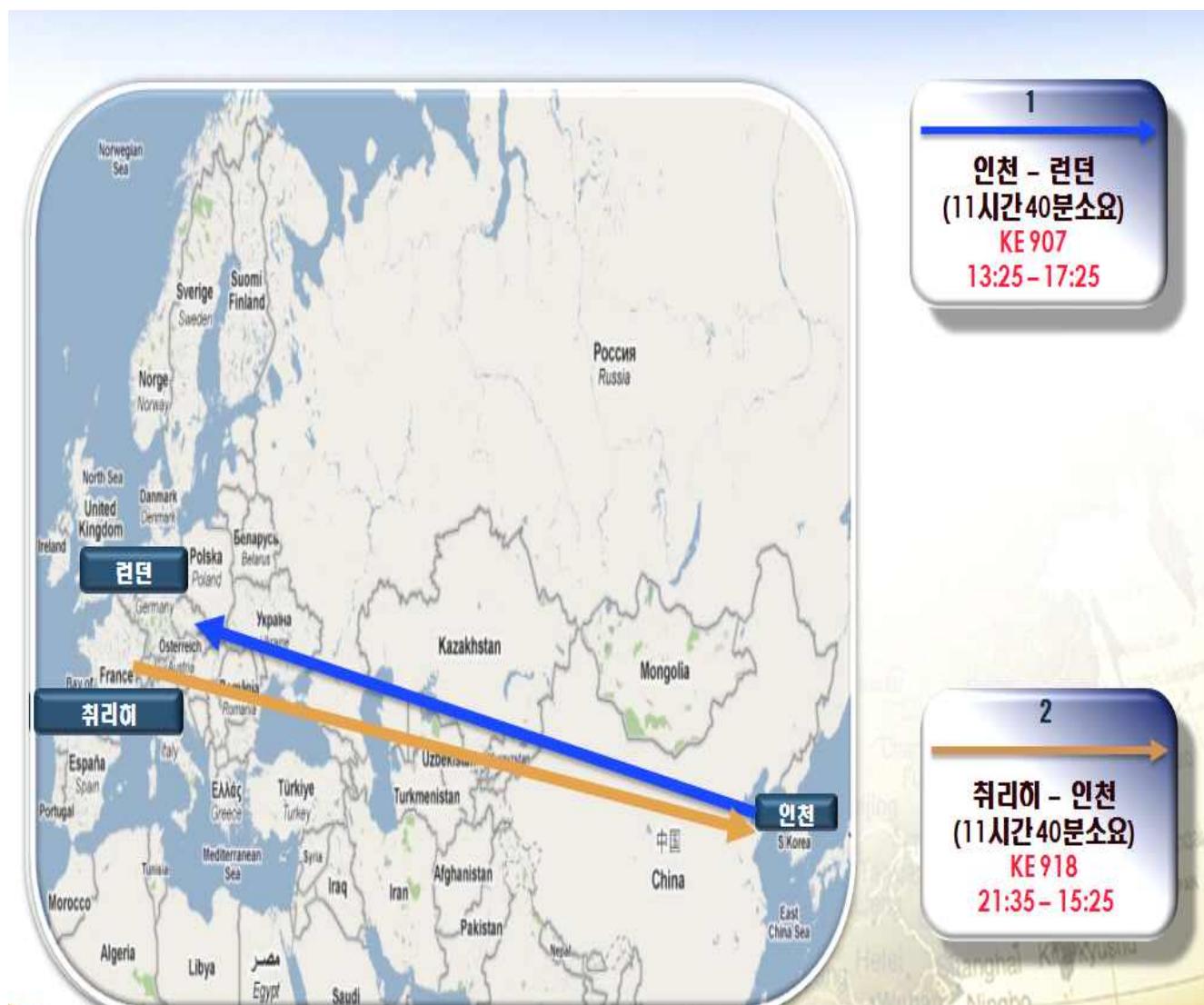
- 영 국 : 지방의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산업협회(EIC)

- 프랑스 : 노인복지시설, 라데팡스 신도시, 전통재래시장, 공공·문화 기반시설(루부르 박물관, 세느강, 베르사이유 궁전 등)
- 스위스 : 관광산업 육성지(알프스 융푸라우), 도시재생 기반시설

5. 연수 루팅 맵(routing Map)

- ① 인천공항 출발 (5.19 /13:25) → ② 런던(2박) → ③ 파리(2박) →
- ④ 인터라켄(3박) → ⑤ 인천공항 도착(5.27 /15:25)

연수흐름



■ 연수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예산군 의 회	의 장	김영호	9	예산군 의 회	의 원	이승구
2	"	의회운영 위원회 원장	권국상	10	"	의 원	임영혜
3	"	행정복지 위원회 원장	유영배	11	의 회 사무과	과 장	민태형
4	"	산업건설 위원회 원장	김만겸	12	"	전문위원	전유진
5	"	의 원	강연종	13	"	의사팀장	박주완
6	"	의 원	명재학	14	"	행정7급	김현태
7	"	의 원	박용수	15	"	행정8급	박상국
8	"	의 원	백용자				

연수 세부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연수내용
제1일 5/19 (목)	인천 런던	KE 907 전용버스	11:30 13:25 1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공항 '3층 A 카운터' 집결(수속) - 인천 국제공항 출발 (12시간 30분 소요) - 런던 공항 도착/ 공항수속 후 가이드미팅 -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 PREMIER INN HOTEL
제2일 5/20 (금)	런던	전용버스	07:00 10:00 13:00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p>▣ 공식방문 : 아동복지시설(유치원)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우수 교육프로그램운영 실태에 대한 의견교환 <p>▣ 런던 우수관광산업 성공현장 빤지마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킹엄 궁전, 빅벤, 국회의사당, 웨스터민스터, 타워브릿지 조망 등 ▶ 서양 문화예술거리의 독특한 건축물 양식 비교 <p>▣ 의회방문 : 지역의회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지역의회 시설 견학 <p>▣ 시설방문 : 영국 에너지 산업협회(EIC)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친환경 에너지 탄문 방문 -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 PREMIER INN HOTEL
제3일 5/21 (토)	런던 파리	전용버스 유로스타	07:00 09:00 13:00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p>▣ 도시계획시설 현장 빤지마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리팔가 광장, 국립미술관 광장, 코벤트 가든 광장, 세인트제임스파크 공원 등 ▶ 런던의 도시기반시설(광장, 공원, 도로)에 대한 활용실태 비교 - 유로스타로 런던 세인트판크라스역 출발 - 파리 도착하여 안내원 미팅 <p>▣ 공식방문 : 파리 사회복지시설(페빠드 양로원)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시대 양로원 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의견교환 -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 BEST WESTERN PLUS PARIS ERMITAGE
제4일 5/22 (일)	파리	전용버스	07:00 09:00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p>▣ 공공시설 및 문화기반시설 현장 빤지마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불박물관,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에펠탑, 노틀담 성당 등 ▶ 문화예술 공간시설의 건축물 형태 비교 - 세느강변 야경문화 답사 / 호텔 투숙 ▶ 세느강 주변호수와 예당호 개발예정지 형태 비교 <p>▣ 시장 방문 : 파리 전통 재래시장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공간시설의 진열 활용 형태 비교 -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 BEST WESTERN PLUS PARIS ERMITAGE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연수내용
제5일 5/23 (월)	파리	전용버스	07:00 10:00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p>▣ 신도시계획/교통계획/도시환경 벤치마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데팡스 : La DEFENSE 파리 신도시 벤치마킹 ▶ 파리의 서부 외곽지역에 건설된 현대식 상업지구 ▶ 자동차 라데팡스 광장 지하 보행자 거리 (현지 전문가 또는 한국인이 안내 및 설명) <p>▣ 시청방문 : 파리시청 홍보관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시청 홍보관 우수 지역 특산품 비교 -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 BEST WESTERN PLUS PARIS ERMITAGE
제6일 5/24 (화)	파리 인터라켄	전용버스 T.G.V	07:00 10:00 17:00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p>▣ 파리 우수관광산업 성공현장 벤치마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르사이유 정원 등 ▶ 100ha나 되는 대정원을 비교 분석하여 우수관광산업 육성 - 초고속 열차로 인터라켄 출발(이동) - 도착 후 호텔 투숙
				호텔 : CITY OBERLAND
제7일 5/25 (수)	인터라肯	전용버스	07:00 09:00 14:00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 전용버스로 응프라우 출발(이동) <p>▣ 친환경 인간과 자연의 조화 : 자연환경보존과 관광산업 육성 정책 벤치마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프스의 영농 유럽의 지붕 '응프라우' 등정 - 스피크스전망대, 알레취빙하, 알프스영봉조망, 얼음궁전 등 -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 CITY OBERLAND
제8일 5/26 (목)	인터라肯	전용버스 KE 932	07:00 09:00 2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조식 후 <p>▣ 도시재생 기반시설 현장 벤치마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 시가지 정비 우수관광지역 벤치마킹 - 반호프거리, 구시가지와 도심지거리, 어린이 편익시설 설치 등 - 공항으로 이동 / 귀국을 위한 수속 - 취리히 국제공항 출발
				기내숙박
제9일 5/27 (금)	인천		1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도착

I

영국 (United Kingdom)



① 국가 개요



- 수 도 : 런던(London, 707만명)
- 면 적 : 246,310km² (우리나라의 1.1배)
- 인 구 : 63,742,977명 (우리나라의 1.5배)
- 언 어 : 영어
- 종 교 : 국교 성공회 50%, 카톨릭 11%, 개신교 30%, 기타 3.9%
- 민 족 : 백인 92.1%, 흑인 2%, 인도인 1.8%, 파키스탄인 1.3%, 기타 2.8%
- 통 화 : 유로화(EURO), 파운드(£)
- G D P : 2조 7,610\$ ※ 1인당 : 38,591\$ (세계 5위)

② 일반 주요 현황

■ 런던의 지리

잉글랜드의 남동부의 런던광역시 Greater London은 면적이 1,580km²이며 도시외곽 순환도로 M25로 둘러싸여 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템즈강은 런던의 중요한 지형을 이루며, 강변이 들쑥날쑥해서 어느쪽에서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런던은 지역 의회 관할의 3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13개구가 센트럴 런던이다.

■ 기후

영국의 날씨는 ‘하루 동안에도 4계절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특징이다. 한여름에도 해가 가리거나 비가 내리면 냉기가 들 정도이다. 멕시코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온난한 기후를 나타낸다. 겨울철 특히 바람이 없는 날에는 안개가 끼고 비 내리는 날이 많다. 연간 강수량은 많지 않으며 1년 내내 날씨가 흐리고 지나가는 비가 많다. 비교적 날씨가 좋은 시기는 5~10월이다.

■ 정치 : 입헌군주제하의 의회정치

영국은 의원 내각제, 즉 의회가 곧 내각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만 채택하여 각 선거구마다 1명만을 뽑는 First-past-the-post 방식으로 모든 의원을 선출한다. 법상 최장 5년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확보한 당이 집권당이 되며, 이들이 내각(Cabinet)을 구성한다. 야당은 예비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하여 집권 시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를 국민이 미리 알 수 있어 정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 의회

「하원」

하원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하원은 각각 하나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659명의 선출된 의원, 즉 MP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정부는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발의된 모든 법안에 대해 논쟁을 벌임으로써 하원은 정치적 환경과 새로운 의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상원」

상원(house of lords)은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상원은 세습 의원들과 국가에 대한 봉사를 인정받아 임명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발의된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상원을 보다 민주적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원으로 만들기 위해 상원을 단계적으로 개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對 대한민국 관계

영국은 1883년 처음으로 한국과 통상조약을 맺었다. 그 후, 한국전쟁에 임하여 참전 16개국 중의 하나로서 군사·경제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공헌이 지대했을 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기타 많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지위향상·보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한 나라다. 1883년 우호통상조약이 조인되었으나 일본에 의해 단절되었다가 1949년 양국은 재수교 하였다. 1999년 4월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영 수교 116년 만에 국가원수로써 최초 방한하였으며 2004년 1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영국을 최초로 국빈 방문하였다. 2012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과 런던 히드로공항간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다.

③ 주요 연수 내용

1

아동복지시설 (The Study School and Nursery)

방문시설 개요

- 시설명 : The Study School and Nursery
- 유형 : 사립형 유치원(independent co-educational school)
- 설립년 : 1923년
- 위치 : 1 Park Road, Hampton Wick, Kingston-upon-Thames, Surrey KT1 4AS
- 홈페이지 : <http://thestudyschool.co.uk/our-nursery>



□ 방문개요

- ▶ 방문일시 : 2016. 5. 20(금) 10:00 ~ 11:30
- ▶ 방문인원 : 15명(의원 10, 직원 5)
- ▶ 면담자 : Donna Brackstone-Drake (수석교사)
- ▶ 방문목적 : 아동복지시설 현황과 연령별·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실태 벤치마킹

주요 질문내용

Q. 시설 총 수용인원과 직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3살부터 11살 사이 약 142명의 아이들이 수업 받고 있습니다.
학년 담임교사가 7명, 간호교사 2명, 수학 코디네이터 1명,
음악 & 미술 코디네이터 1명, 상담교사 1명, 어시스턴트 5명으로
총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시설의 설립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A. 저희는 1923년에 설립된 교육시설로 아이들에게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최대
학습 잠재력 달성을 학습에 대한 긍정적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Q. 시설이 추구하는 중점 추진사항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저희는 아이들에게 친밀한 교육 지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들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존중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목적적 치유 시스템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Year 2단계에서 Year 6단계까지 운영되는 학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3~4살의 학생이 Year 2단계, 4~5살 학생이 Year 3단계, 5~6살
학생이 Year 4단계, 7~8세가 Year 5단계, 9~10세가 Year 5단계,
11세 아이들이 Year 6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아이들 교육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대부분 현장수업과 발표 위주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Q. 한국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체벌 학대가 문제시 되어 시설 내 CCTV 설치가 법적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A. 시설 내 직원의 아동 학대나 체벌 방지를 위한 CCTV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이나 일에 대해서는 금요일 오후 자율 활동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조건 등을 행하여 본인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런던의 아동복지시설의 규모면에서 우선 거대하다. 이 거대함이 시설의 면적이나 외형적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용 학생 수 대비 선생님 등 직원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군의 교사 1인당 수십 명의 아이들이 배치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 현실과 많이 비교된다. 전문 인력 확충 방안을 위한 아이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 또한, 현장과 체험 위주의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으로 한 연령·단계별 수업 진행 현장은 우리군도 벤치마킹 하여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느껴보는 체험 위주의 현장 학습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가슴에 노트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이 많아졌으면 한다.

□ 방문 관련사진



사진설명 시설방문 기념촬영



사진설명 교육시설 현장 견학



사진설명 교육 프로그램 현장 참관



사진설명 수석교사와의 면담



사진설명 교육 프로그램 현장 참관



사진설명 선물 증정

2

우수관광 및 에너지산업 벤치마킹

□ 방문개요

- ▶ 방문일시 : 2016. 5. 20(금) 13:00 ~ 17:00
- ▶ 방문대상 : 버킹검 궁전, 빅벤(Big Ben),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국립박물관, 대영박물관, 지역의회, 영국 에너지산업협회
- ▶ 방문인원 : 15명(의원 10, 직원 5)
- ▶ 방문목적 : 런던의 우수 관광 및 에너지산업 성공 현장 방문과 문화예술거리의 건축물 양식 등 벤치마킹

□ 관련 사진자료



사진설명 버킹검 궁전 방문 기념



사진설명 빅벤(Big Ben) 방문 기념



사진설명 국회의사당 방문 기념



사진설명 웨스트민스터 방문 기념



사진설명 국립박물관 방문 기념



사진설명 대영박물관 방문 기념



사진설명 지역의회 방문 기념



사진설명 에너지산업협회(EIC) 방문 기념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나라의 역사를 살려 담아내고 이를 고고학, 건축, 자연(풍경) 등 대분류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 외에 환경을 연관시켜 복원하고 건축 시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어야 하는 사전 허가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이를 코드화 하여 전문가간의 평가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하나의 관광지에도 역사적 스토리를 담아서 관리시스템화 하는 운영 방법은 앞으로 황새관광, 온천관광 등 역사적 기록과 환경을 근간으로 해야 하는 우리 예산 관광의 중심에도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도시계획시설 벤치마킹

□ 방문개요

- ▶ 방문일시 : 2016. 5. 21(토) 09:00 ~ 12:00
- ▶ 방문대상 : 도시기반시설, 국립미술관 광장, 트라팔가 공원 등
- ▶ 방문인원 : 15명(의원 10, 직원 5)
- ▶ 방문목적 : 런던의 도시계획시설 개발사례와 건축물 양식 등 벤치마킹

□ “도크랜드” 개발사례

① 도시개요

- 위치 : 영국 런던 도심 동측 8km(템즈강 변)
- 총 면적 : 2,200ha(약 665만평)
- 인구 : 22만명
- 인구밀도 : 55인/ha
- 도시형성 : 구 항만지역을 1981년부터 신도시로 개발

② 도시의 변천과정

- 1880년대 런던의 항구로 개발되면서 1960년대까지 유럽의 가장 번성한 상업항구 중의 하나였음
- 이후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설의 노후화 수송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한 도크들이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급속히 쇠퇴하여 결국 폐허처럼 방치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쓰레기가 쌓이고 부랑자가 모여드는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됨
- 이러한 쇠퇴한 지역에 경제의 활성화 요구 등으로 인하여 1981년 런던 도크랜드개발공사(LDDC)가 설립되면서 신도시의 개발을 촉진
- 정부주도의 대규모 용도변환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인접 도심부의 업무시설 공급부족 및 주택난 해소, 과밀방지, 도시경쟁력을 가진 국제적 업무단지로 발전하여 항만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됨

③ 각 지구별 규모 및 특징

지 구	규 모	특 징
Surrey Docks	82만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시설(London Bridge City) • 복합주거시설, 식음 / 레저 • 주택 / 마리나 등 각종 해양 • 스포츠시설 / 박물관 / 가축농장 등
Wapping	54만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무역센터, 타워호텔, 백화점, 식당 등 상업지구 • 전통적인 양식의 거리와 건물 : 매력적인 상업, 주거 지구 (사무실, 고급아파트, 마리나) • 주요시설 : 런던타워, 월드트레이드 센터, 타워호텔, 대규모 안내소
Isles of Docks	59만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핵적 재개발 위치로 기업유도조성지구(면세혜택), 국제금융센터(Canary Wharf) 및 주변 공간 위락시설 계획 • 다목적 체육관(12,500석 규모의 회의장으로 전용가능) • 호텔(400실 / 2개소) • 기업체 업무용 빌딩(29개소)
Royal Docks	33만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Park: 10만평 ■ West SilverUrban Village: 10만평 ■ Royal University College: 3만평 ■ ExhibitionCenter : 10만평 - 런던시티공항을 개발하여 유럽 각 도시와 연계 - 비즈니스 파크(제조시설, 연구소 등), 사무실, 주거시설 - 대학교 - 대규모 체육관, 전시관, 호텔 / 휴양시설, 스포츠 시설 등 - 25,000석의 체육관, 전시관, 쇼핑시설, 호텔 등

④ 혁신 사례

① 도시 내 각 기능의 조화를 가능케 한 교통망

- 정부보조 및 토지분양으로 조성된 17억 파운드의 상당부분이 경전철, 도로 등 교통시설에 집중투입
- 대규모의 민자 유치가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역할을 함.
- 도크랜드를 동서로 가로질러 런던도심과 동쪽 끝 주거지역인 백턴지역을 잇는 경전철 건설
- 경전철을 이용하여 곧바로 도심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Underground)을 갈아타면 런던시내 어디로든 쉽게 갈 수 있음
- 1987년에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노선은 물론 15개 유럽지역 노선이 취항하는 공항(런던 시티공항)까지 동 지역에 개설

② TFL(Transport for London)

- 런던의 대중교통서비스 경영전략과 운영을 담당하는 시영공사
- 튜브(런던 지하철), 런던 시내버스, 도크랜드경전철(DLR), 노면전차(Tram), 수운서비스(London River Service)등의 운영 및 총연장 580km의 주도로와 4,600여개의 신호 등 관리업무 전담
- 교통 혼잡통행료 업무 등 이러한 관련업무의 전담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TFL은 지하철, 버스, 경전철, 노면전차, 자전거, 택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통 연계시스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음.

③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택개발

- 자족성 확보와 도시 내 각 기능의 완벽한 조화를 목표로 주거 · 레저 · 교육시설을 균형 있게 조성
-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 주거지 계획 및 개발
도심과 가까운 워苦难과 버몬시 리버사이드 지역은 고풍스런 옛 멋을 그대로 살린 고급 주택지역으로 개발

- 1981년부터 지금까지 약 19,900여 가구의 주택이 새로 건설됨.
- 플라트(Flat)라고 불리는 4~5층의 공동주택과 10층 내외의 아파트도 건설되어 주로 서민용이나 극빈자를 위한 임대용으로 사용

④ 전통의 가치와 수변공간을 통한 개발

- 역사적 경관의 보존과 신규개발의 조화를 추구
-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증·개축을 통한 기존 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전통건축의 디자인요소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임

⑤ 자본의 유치와 산업 (민자 유치와 유인책)

- 1981년 이후 신도시개발비 80억 파운드의 80%에 가까운 63억 파운드를 민간자본을 통하여 확보
-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각종 민자 유인책을 만들어 기업에 제시
- 민자 유치방식이 정부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도크랜드를 단시간 내에 국제적인 상업도시로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판단
- 중심업무 및 상업지역으로 설정된 도크랜드 Isles of Docks내 카나리워프 일대 1백 93ha를 투자지구(Enterprise Zone)로 지정하여 각종혜택 제시
- 토지를 매입하여 빌딩 등을 건설할 경우 건축 관련 세금을 감면 하는 등 건축비용을 절감하였고 까다로운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법인을 세워 기업 활동을 할 경우 10년간(1982~1992년) 지방세 일종인 사업세를 면제하는 우대조치

⑥ 결과 및 현황

- 1981년 이후 지금까지 1천 4백여 개의 국내외 기업이 이전하고 일자리 수도 1981년 27,200개에서 현재는 7만여 개로 증가
- 네덜란드와 덴마크 관련업체가 주택건설에 중점적으로 참여 중이며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재정을 확충시킴으로써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

⑤ 성 공 요 인

- 빈틈없는 초기계획과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대규모 슬럼지역을 무리 없이 새로운 신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됨
- 집단재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기능을 이상적으로 결합,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해내는 것은 물론 도시생산성을 극대화시킴
- 투자에 따른 이익실현 환경조성을 통해 외국기업자본의 투자 유도
- 완벽한 교통망이 대규모 민자 유치를 가능케 한 인프라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활성화시킴.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구도심의 재개발 프로젝트로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하나의 지역을 제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함.
- 해외투자를 비롯한 민간자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주고 갈등과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하여 도달한 개발성과와
-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도시개발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여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감으로써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관련 사진자료



사진설명	건축공사 현장
------	---------



사진설명	유명 관광 시설 런던아이
------	---------------



사진설명	공용 자전거 거치대
------	------------

사진설명	자전거 전용 도로 현장
------	--------------



사진설명	도심 속 교통수단 1
------	-------------

사진설명	도심 속 교통수단 2
------	-------------



① 국가 개요



- 수 도 : 파리
- 면 적 : 643,801km² (우리나라의 1.1배)
- 인 구 : 66,259,012명 (우리나라의 1.5배)
- 언 어 : 프랑스어
- 종 교 : 가톨릭 83%, 이슬람교 5%, 개신교 2%, 유대교 1%, 기타 9%
- 민 족 : 켈트족, 라틴족, 슬라브족, 북아프리카인, 인도차이나인 등
- 통 화 : 유로화(EURO)
- G D P : 2조 4,648\$ ※ 1인당 : 35,5191\$ (세계 2위)

② 일반 주요 현황

■ 프랑스의 지리

동쪽은 이탈리아·스위스·독일, 북동쪽은 룩셈부르크·벨기에와 접하고 북서쪽은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과 마주하며, 서쪽은 대서양, 남쪽은 지중해와 에스파냐로 이어진다. 프랑스 지형의 근본은 평활한 지형이다. 동부의 보주와 쥐라의 산지사이로부터 손강·론강 하천 골짜기 우변을 따라 남하하여 지중해 해안평야 북쪽 가장자리를 거쳐 피레네 북쪽에서 대서양으로 나간다. 북서쪽은 동유럽부터 북서유럽으로 이어져 있는 평야·대지·고원이 차지하고, 3억~4억년 전 헤르시니아 조산운동으로 형성, 오랜 세월 동안 침식되어 고원 모양으로 낮아진 고생대 산지를 골격으로 한다.

■ 기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다. 대부분 지역이 온대성 기후이나 지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북부 및 북서부 지방은 강우량이 비교적 많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교차하는 지역이어서 대체로 습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남부지방은 비교적 강우량이 적고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동부지방은 대륙성 기후 영향을 받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15~20도로서 7월 평균기온이 섭씨 20도이고 겨울의 평균기온은 영상 2도이다.

정 치

드골장군은 1958년 10월 8일에,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여 대통령에게 강대한 권한을 주는 헌법을 공포했다. 이 헌법에 바탕을 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에 있는데,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와 각료로서 구성된다. 초기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으나,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5년으로 단축하였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는 2회 투표, 소선거구제의 직접 · 보통 선거로 선출되는 577명의 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국민의회 및 지방의회 대표에 의한 간접선거로 구성된다(정수 319명, 임기 9년, 3년마다 1/3개선).

對 대한민국 관계

조선 후기에 국교를 수립했으나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는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프랑스 조계 지역의 경찰들은 김구 주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이유에서일 뿐,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한국과 프랑스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축구 선수 이용재 등이 프랑스 클럽에서 뛰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교과목에 프랑스어가 개설되어 있고, 프랑스에서는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파비앙 코르비노는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많은 프랑스인들이 서래마을에 살고 있다. 2015년 9월 18일에는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에펠탑에서 레이저 쇼를 했다.

③ 주요 연수 내용

1

사회복지시설

방문시설 개요

- 시설명 : 메빠드 양로원
- 유형 : 비영리 Association



□ 방문개요

- ▶ 방문일시 : 2016. 5. 21(토) 13:00 ~ 14:30
- ▶ 방문인원 : 15명(의원 10, 직원 5)
- ▶ 면담자 : Association 원장
- ▶ 방문목적 : 양로원 운영과 시설 벤치마킹

주요 질문내용

Q. 메빠드 양로원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은 몇 명 정도 되나요?

A. 현재 본 양로원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65명이고 76세에서 104세까지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Q. 메빠드 양로원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A. 총 3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 3명, 의사 1명, 간호사 12명, 보조원 8명, 접수원 1명, 청소원 1명, 세탁원 1명, 기타 3명

Q. 프랑스 양로원 시설은 어떤 형태(유형)로 운영 구분되나요?

A. 이 나라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형, 비영리 형태의 Association형, 국가 또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세 가지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Q. 한국에서는 종교계에서 양로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어떠한지요?

A. 이곳에서도 종교단체에서 양로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유지비 등 경영상 감당하기 어려워 종교단체에서 양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Q. 개별 시설에서 연합체로 구성 운영해 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A. 주로 양로시설 운영에 있어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통합관리 체계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에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시설도 6월 말경 “**Arpavie**”라는 연합체 형태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Q. 정부로부터 전액 보조를 받는 수급자를 각 시설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제한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A. 별도 시설별 정부로부터 전액 보조를 받는 수급자를 전체 수용 인원 중 몇 %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원 다 수급자를 받을 수 있고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메빠드 양로시설 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

A. 본 시설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신문 읽어주기, 노래 불러주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양로시설 지원체계나 기본적인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다. 의료기술 발달 등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양로시설, 복지시설 등의 필요성은 대두되지만 우후죽순처럼 많아지는 양로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상의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쯤 생각하여 그 필요성을 적극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방문 관련사진



사진설명 시설방문 기념촬영



사진설명 프로그램 운영 현장



사진설명 시설장과의 면담



사진설명 시설견학 장면



사진설명 시설관계자와의 기념촬영



사진설명 선물 증정

2

공공시설 및 문화관광 기반시설 벤치마킹

□ 방문개요

- ▶ 방문일시 : 2016. 5. 22(일) 09:00 ~ 17:00
- ▶ 방문대상 : 루부르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개선문, 에펠탑, 전통시장, 풍텐블루, 풍덴블루, 전통시장 등
- ▶ 방문인원 : 15명(의원 10, 직원 5)
- ▶ 방문목적 : 공공시설 및 문화기반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반영

□ 관련 사진 자료



사진설명

루브르 박물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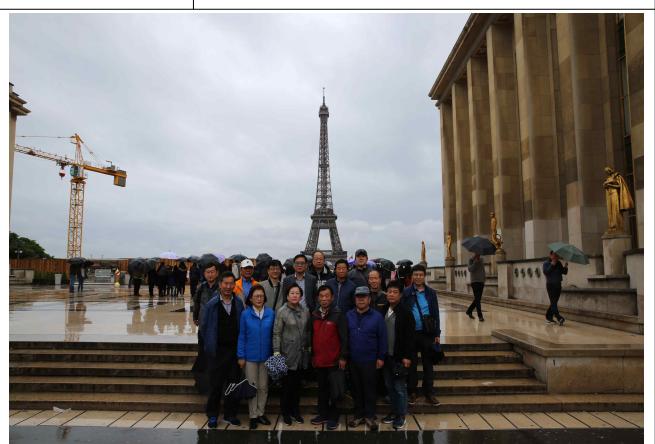
사진설명

베르사유 방문



사진설명

개선문 방문



사진설명

에펠탑 방문



사진설명 풍덴블루 방문

사진설명 전통시장 방문

3

도시계획 및 신도심 지역 벤치마킹

□ 방문개요

- ▶ 방문일시 : 2016. 5. 23(월) 10:00 ~ 17:00
- ▶ 방문대상 : 라데빵스, 파리시청 홍보관 등
- ▶ 방문인원 : 15명(의원 10, 직원 5)
- ▶ 방문목적 : 공공시설 홍보관 및 문화기반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반영

1. 파리의 신도시 계획

파리의 도시계획은

지정할 장소와 보존해야 할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도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은 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

파리도시계획연구소(APUL)

- 공적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조직(1967년 창설)
- 건축가, 엔지니어, 사회,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90명)
- 파리의 도시계획, 도시조경, 교통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 수립
- 광역 파리 만들기 연구(파리의 주변도시와 연계한 광역적 설계)
- 정부, 파리시청, 상공회의소, 에너지관련 기관들과 파트너십 구성
- 주요 미션
 - 파리의 분석(주거, 직업, 인구 등 전반적 사항)
 - 미래 파리의 청사진 제시(도시설계의 큰 선을 그림)
 - 주변 도시 등에 도시정책, 설계 등 전문성 및 경험을 제공

○ 현안 문제

- 면적은 1/10이지만 인구수는 1/5이 거주하는 밀집형 도시이며 관광도시로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이 필요
- 빈부의 격차가 커 도시 불평등 심화에 따른 대책 필요
- 중산층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여 대책 필요

○ 환경문제

- 기후플랜 : Co2 감소 계획 *2050년까지 현재의 1/4까지 감소계획
※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행정의 노력
 공공부문은 30%를 줄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부문에서도 25%를 줄이도록 동참을 이끌어내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Greening Paris : 컴팩트한 도시에 한계가 있지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플랜을 구상

※ 2020년까지 30ha의 녹지를 더 확보할 계획

- 기존 건물 철거시 녹지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
- 건축물에 녹색을 만든다는 개념 도입 “**벽면녹화, 옥상정원 등**”
- 공공장소 및 거리 가로수 2만 그루 심기

「빈티만 있으면 나무 심기」

- 전형적인 가로수 줄맞춰 심기 지양함으로써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추진 (앞으로 녹지공간을 100개 더 조성예정)
- 강변로(세느강변) 녹지 확대 정책 추진 : 차량이 다니던 강변로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음. 점차 강변로 양쪽 모두 확대계획

○ 교통정책

- * 자동차는 불편하게하고 사람 위주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차는 줄이고 광장(녹지 + 시민공간)은 넓힌다는 21세기 파리 철학이 있음
- 보행자 및 자전거 우선 도로 정책 추진
- 파리의 중심가 : 자동차 감소정책 (자동차 금지구간 구역확대)
- 대체 교통수단 개발 (자전거, 전차)
 - 자전거 이용 확대 정책 : 자전거도로 700km, 대여소 1,800개소 확보
“가까운 곳 어디든 자전거 대여소는 있다” 는 개념이 시민들 인식에 자리 잡음.
 - 자동차 보유율이 줄어들고 있으며(파리 인구의 50% 이하), 현재 파리시민들은 10번 중에 1번만 자동차를 이용할 정도로 자동차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음.

○ 주택정책

-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중산층이하 시민들이 사회공공주택이 살 수 있는 주거형태가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주택단지조성 및 다세대 등 주택 건축 사회공공주택을 일정부분 짓도록 법으로 규정
- 사회공공주택 비율을 20%에서 2030년까지 30%까지 늘릴 예정

○ 경관계획

- 고도제한 정책 : 파리의 경관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김.
 - 지구별 고도제한 차별화로 경관 보호
(보존지구 주변 지역 : 25m 이하, 그 외 지역 31~37m)

○ 주민참여

- 모든 도시계획에 계획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안은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공유
- ※ 계획부터 주민과 함께하므로 완성단계에서 주민의 반대 등 주민의 갈등상황을 예방
-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언권을 독점하는 세력이 없도록 다양한 주민과 교류를 추진
 - 인터넷 등 적극 활용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아이들은 도시계획에 의한 직접적인 대상자이고 가정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과의 소통의 원활함을 이끌어 냄.

○ 기타사항

- 옛 공장, 창고 등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의 역사성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건축물의 역사성과 현대적인 이미지가 조화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 다음 세대를 위해 역사적인 건축물이 될 만한 건축 정책을 펼.

2. 라데팡스 신도심

라데팡스 신도심은

※ 파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유한 도시로서 늘어나는 인구와 상업기능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인구분산 및 상업의 기능을 위해 조성된 신도심으로서 파리시가 갖는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조성되어 있었음.

라데팡스 현황

- 파리의 중심가인 루브르박물관과 개선문을 중심축으로 도심에서 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
- 파리의 업무기능과 인구분산을 위해 계획된 도시(225만평)
- 1958년 라데팡스 개발공사 설립 후 1964년 라데팡스 개발 마스터 플랜에 개발 착수하여 1990년대 사업 마무리

○ 특징

-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주차장 등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 도시 지하에 설계 (지상 : 비즈니스공간, 지하1층 : 주차장, 상점 지하2층 : 도로 지하3층 지하철)
- 보행자구간과 도로 등 엄격한 분리를 통해 “보행자 지상주의” ,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도시”를 구현
- 상업지구 중심의 도시설계로 밤에는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어 문제가 발생
- 광장 등 유지에 많은 비용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역 확충 및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 등 노력을 전개 중

○ 라데팡스 신도심의 효과

- 파리는 문화와 역사가 풍부한 도시로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지 및 상업지역 확보에 한계가 있어 라데팡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유명 건축가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건물들이 들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상업지구의 메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리의 업무기능 및 인구가 분산되었으며, 파리를 파리답게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음.

□ 관련 사진 자료



사진설명 라데팡스 도시계획 배지도



사진설명 라데팡스 신도심 현장



사진설명 라데팡스 비즈니스 존



사진설명 국내기업 현장 광고



사진설명 파리 시청 방문



사진설명 파리 시청 홍보관 방문

4

우수 관광산업 성공현장 벤치마킹

□ 방문개요

- ▶ 방문일시 : 2016. 5. 24(화) 10:00 ~ 15:00
- ▶ 방문대상 : 베르사이유 정원 등
- ▶ 방문인원 : 15명(의원 10, 직원 5)
- ▶ 방문목적 : 100ha나 되는 대정원을 비교 분석하여 우수 관광산업 육성

□ 관련 사진 자료

	
사진설명 베르사이유(Versailles) 정원	사진설명 베르사이유(Versailles) 정원
	
사진설명 베르사이유(Versailles) 정원	사진설명 베르사이유(Versailles) 정원

III 스위스 (Switzerland)



① 국가 개요



- 수 도 : 베른
 - 면 적 : 41,285km²
 - 인 구 : 8,061,000명
 - 언 어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 종 교 : 가톨릭 41.8%, 개신교 35.3%, 이슬람교 4.3%, 무교(11.1%), 기타 7.5%
 - 민 족 : 게르만족 65%, 프랑스인 18%, 이탈리아인 10%, 기타 7%
 - 통 화 : 프랑(SFr, CHF)
 - G D P : 65,185억\$ ※ 1인당 : 78,179\$ (세계 2위)

② 일반 주요 현황

■ 스위스의 지리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서, 동서로 뻗은 알프스 산맥, 그 북서부에서 북동으로부터 남서로 뻗은 쥐라 산맥, 그리고 두 산맥 사이에 중앙 고원, 이렇게 세지대로 대별된다. 알프스의 산릉에서 여러 깊은 계곡이 파여 심플론, 생 고타르, 생 베르나르 등의 고개와 레만 호, 뇌샤텔 호, 보덴 호 등의 호수가 있다.

■ 기후

스위스는 전체적으로 산악기후이지만 복잡한 지형을 반영하여 변화 무쌍하다. 연 평균 강우량은 북부 평지에서 1000mm전후, 남부 산록에서 2000mm에 가깝다. 기온은 7월의 평균이 20°C 이하 1월에는 1°C 전후이다. 고지대에서는 연간 6~7개월은 눈이 쌓인다. 2500m의 설선에서 위쪽은 빙설원 또는 빙하 지대이다

■ 정치

스위스 정치는 1848년 연방 헌법에 따라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 사항에 참여한다. 또한, 스위스 의회는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반면 투표율은 40%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 对 대한민국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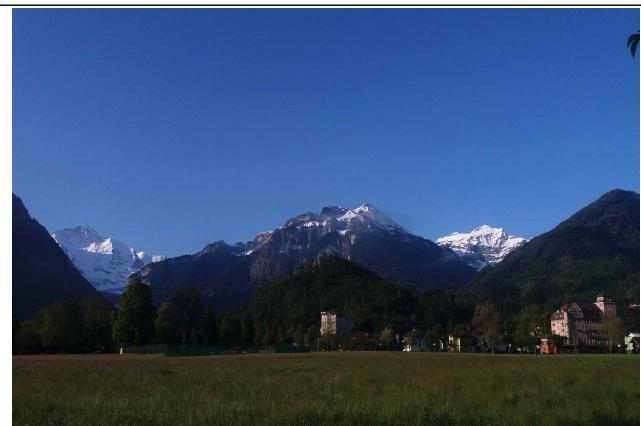
영세중립국으로서 대한민국과는 1962년, 수교하였다. 우리나라와는 항공협정, 공업협정,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 하였다. 한국 교민도 약 2000명 거주한다. 축구 선수 박주호 선수가 스위스 축구 리그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와 우리나라와 운항하는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취리히와 인천을 연결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가기도 한다.

자연환경 및 관광산업 육성정책 벤치마킹

방문개요

- ▶ 방문일시 : 2016. 5. 25(수) 09:00 ~ 17:00
- ▶ 방문대상 : 알프스 융푸라우, 얼음궁전, 스핑크스전망대
- ▶ 방문인원 : 15명(의원 10, 직원 5)
- ▶ 방문목적 : 자연환경보존을 통한 관광산업육성 정책 벤치마킹

관련 사진 자료



사진설명

공원조성 현장



사진설명

융푸라우 정산 방문



사진설명

관광 철도산업 현장 방문



사진설명

희생자 추모 현장 방문

도시재생 기반시설 현장 벤치마킹

□ 방문개요

- ▶ 방문일시 : 2016. 5. 26(목) 09:00 ~ 17:00
- ▶ 방문대상 : 구시가지(우시장) 정비지, 반호프거리 등
- ▶ 방문인원 : 15명(의원 10, 직원 5)
- ▶ 방문목적 : 도심지 시가지 정비 현장 벤치마킹

□ 관련 사진 자료



사진설명 구시가지(우시장) 개발지 현장



사진설명 주요 교통수단 트램



사진설명 주시가지 공원 조성 현장



사진설명 관광지 현장

□ 도시개발 및 관광산업 관련 토의내용

○ 김영호 의장

- 도시계획과 관광산업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
- 원도심의 도시재생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
- 원도심과 신도심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갖게 해야 함.
- 예산군 도시재생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신도심도 소프트웨어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할 수 있음.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결성하고 세대별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됨.
(아파트별 사회적 기업, 육아사업 등 정적인 네트워크를 강화 시켜나가야 함)
- 각 지역별 중요 포인트를 점이라고 한다면 각 점을 연결하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만나 면을 이루는 것처럼 도시가 한 지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점, 선, 면이 상호 유기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유영배 의원

- 협오시설을 공원화, 문화시설화 하는데 주민들의 설득과정을 이해하고 배워야 함.
- 공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전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소통하고 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군민과 공직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함.
- 도시가 갖는 정체성(문화와 역사)에 혼을 불어 넣어야 함.

○ 김만경 의원

- 도시재생에 대해 초기단계로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이 있음
- 시작단계이므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할 때임
- 원도심의 쇠퇴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활기를 찾아야 하는 시기로서 주민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 새로운 마인드로 도시재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과거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처럼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주민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한시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우리 군만이 갖는 정체성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민태형 과장

- 도시재생(개발)을 하는 목적과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도시가 갖는 생명의 씨앗을 찾아야 함. 주민들의 삶의 형태 분석 필요
- 보이기식 사업은 지양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것
- 현장을 수십 회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접목해 가는 살아있는 업무추진이 요구됨.

○ 전유지 전문위원

- 도시재생의 성패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함.
- 우리가 가진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함 (**주민참여, 스토리텔링, 역사와 문화 등**)
- 신도심과 원도심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예산형 도시재생을 위하여 행정과 의회 모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임.

① 국외연수를 마치며 ...

이번 국외연수를 마치면서 도시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마인드를 함양하게 되었음. 창조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란 말이 있듯이 예산군의회 연수단은 서유럽 3개국 현지 견학을 통해 많은 보람도 있었지만 예산군의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사업 발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큰 짐도 선물로 받았음.

첫째는 “도시재생(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된다” 는 것

주민을 위하여 또는 주민참여라는 용어를 쉽게 입으로는 말할 수 있을 것임. 도시재생(계획)이란 10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함. 영국, 파리의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과 현장 견학을 통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지 고민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음.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제시와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공직자들은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 큰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거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두 번째, “도시재생과 관광산업은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임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과 관광산업을 한다면서 유사한 용역을 실시하고 자기 고유의 정체성 없는 따라 하기 사업을 펼쳐 결국엔 어디를 가나 특색 없는 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실정임.

그래서 우리는 예산형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고 있음. 획일화된 도시재생

방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근본문제를 파악하고 앞으로 미래의 일까지 염두하고 고민해서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도시재생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세 번째, “도시계획은 도시가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고 복원하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합적 안목에서 끊임없이 활력적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임.

그 지역만이 갖는 독창적인 것, 유일한 것은 역사와 문화가 대변함. 역사와 문화는 그 지역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얼이고 업적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임.

우리가 방문한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스위스 취리히 등의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하지 않는 곳은 없었으며, 이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전승, 보존하면서 도시를 발전시켜 지금까지 온 것이

세계인을 끌어들인 관광도시,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자긍심을 갖고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도시재생과 관광산업 발전의 한 면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하게 현대적인 편안함과 쾌적함만을 생각하는 도시계획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임.

② 예산군 접목사항

- 천년의 역사와 향기 가득한 향토사와 문화, 우리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예산군에 맞는 도시재생사업과 관광산업을 위한 지역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아이디어 페스티벌” 같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과 행정, 군의회가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협업, 역할분담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여야 함.
- 방문 도시의 경우 대부분이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단순한 보존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와의 조화로운 접목으로 새로운 경관과 문화를 창출하고 있음. 우리군의 경우 단순 복원이 아닌 현대와 접목시킨 상징화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역사의식과 시민정신을 고취시키고 후세에 물려줄 랜드마크적 요소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공원은 강과 공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문화 행사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음. 우리군의 경우도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를 적극 활용하고 구도심도 이에 맞는 먹거리(**국밥거리**), 볼거리(**작은영화관**) 및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 할 수 있는 자원을 찾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구도심과 신도심이 하나의 유기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